2019. 5. 7 455호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불법이민자·노숙자도 차별없는 거주증 발급

문화·관광 도시 둘레길 친환경 오두막 10여년간 '시민 사랑'
'이웃의 날' 기념축제 전국 1천여곳 동시 개최

환경·안전 미세먼지 줄이는 전기버스 도입 본격화
태양열발전 식수자판기로 물부족 문제 해결

도시교통 스마트교통기술 활용 무인 도로청소차 도입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 '규제 강화·에티켓 홍보'

도시계획·주택 "세입자 주거안정성 높이고 집주인 권리도 보장"
도시 재창조·재생 꿈꾸는 시민참여 마스터플랜
시민이 계획하는 유럽 최대규모 초소형주거단지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암스테르담	장한빛
베를린	신희완
	유진경
	홍남명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하노버	이희재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뉴욕	윤규근
	이수진
	이정근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시애틀	강민규
시카고	김영준
	강기향
하와이	임지연
휴스턴	이경선
상파울루	김현아
스톡홀름	문선우
	허윤회
바르셀로나	진광선
	박정수
싱가포르	이은주
런던	정기성
비엔나	안병선
로마	서동화
피렌체	김예름
뉴델리	박원빈
	박효택
자카르타	박재현
도쿄	박재호
오사카	권용수
베이징	박성은
상하이	문혜정
에드먼턴	장지훈
토론토	고한나
	김용훈
보르도	김준광
파리	김나래
시드니	정용문

불법이민자·노숙자도 차별없는 거주증 발급

신분증 대체 '시티키 카드', 교통카드·할인혜택 등 다양한 기능 제공

미국 시카고市 / 사회·복지

미국 시카고市는 시카고에 거주하지만 공식적인 신분증 발급이 어려운 불법이민자와 취약계층 등도 차별받지 않고 시카고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난 2017년부터 '시카고 시티키 카드'(Chicago CityKey Card) 프로그램을 도입함. 시티키 카드는 시가 인정하는 신분증이며, 교통카드·도서관카드 기능과 다양한 할인혜택까지 제공하는 다기능 거주증임

개요

○ **공식적인 신분증 발급이 어려운 시민이 신분증을 대신해 사용할 수 있는 거주증**

- 시카고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노숙자 등의 취약·소외계층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를 간소화
  - 불법이민자, 미국 시민이지만 출생신고 누락 등으로 신분증명이 어려운 사람, 취약계층 등이 주요 대상이지만, 일반 시민도 발급 가능
- 경찰관·공무원 등 시 공공기관 전반에서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
  - 불법이민자 등 차별받을 우려가 있는 시민에게 시티키 카드는 시에서 인증하는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함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교육을 진행
- 시민의 건강상태와 알레르기 등의 특이사항을 기록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

주요 내용

○ **가입 자격은 시카고 거주 증명이 가능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시카고에 거주 중인 사람은 성인·청소년·아동 누구든 발급 가능
  - 신분이 확실한 미국인은 물론, 불법이민자·노숙자·범법자 등도 시카고의 시민이라면 차별 없이 발급
- 영어가 불편한 이민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언어로 신청 가능
  - 영어, 스페인어, 폴란드어, 아랍어, 한국어, 힌디어, 우르두어

○ **시티키 카드를 소유한 시민 모두에게 다양한 문화공간 입장료 할인 혜택 제공**

- 신분증·도서관회원권·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시정부는 시티키 카드를 문화체육시설이나 건강기관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 저소득층을 포함해 시티키 카드를 가진 모든 시민에게 혜택을 부여하여 편견이나 차별의 여지를 차단
  - 시카고 자연사 박물관(Chicago Field Museum) 1회 무료입장, 링컨 공원 동물원 회원권 10% 할인, 리프트(Lyft) 등 차량 공유서비스 5회 25% 할인 등

○ **2019년 1월부터 의약품 할인 프로그램도 병행**

- 60,000종 이상의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최대 80% 할인해주는 프로그램과 병행해 의료보험이 없는 많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주증으로 자리매김

[그림 1] 시카고 시티키 카드 예시

○ **지역 영세상인, 소규모 금융기관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 식당·옷가게·엔터테인먼트 시설(영화관, 게임장 등) 등 지역 영세상인의 가게와 협력해 할인혜택을 제공
  - 현재 24개의 지역상점이 등록되어 있고, 시정부는 꾸준히 협업 대상을 늘려나가며 시티키 카드의 혜택을 도시 전반으로 확대 중
- 지역 기업을 운영하는 상인도 시티키 카드의 혜택을 받아야 할 시민이라는 인식 아래, 시민의 지역상점 이용을 유도
- 지역의 소규모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다른 신분증 없이 시티키 카드만 있어도 신분을 인정하는 정책을 펼치며 지역경제 전반을 증진시키려 노력

http://www.chicityclerk.com/chicagocitykey/about/citykey-benefits

http://www.chicityclerk.com/chicagocitykey/about

http://www.chicityclerk.com/chicagocitykey/how-apply

https://www.youtube.com/watch?v=caGAkZhvUZc

강 기 향 통신원, gihyangkang@gmail.com

도시 둘레길 친환경 오두막 10여년간 '시민 사랑'

프랑스 보르도市 / 문화·관광

프랑스 보르도市는 도시 둘레를 도보로 여행하면서 하룻밤 묵을 수 있는 친환경 오두막 10곳을 2010년부터 설치·운영 중임. 편의시설을 최소화한 독특한 디자인의 오두막은 불편하지만 특색 있는 공간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10여 년간 많은 시민에게 사랑을 받고 있음

배경

○ 한 젊은 건축가의 다소 엉뚱하고도 기발한 상상력에서 시작된 사업

- "보르도시의 둘레를 도보로 여행하면서 하룻밤씩 묵을 수 있는 산장과도 같은 친환경 오두막을 만들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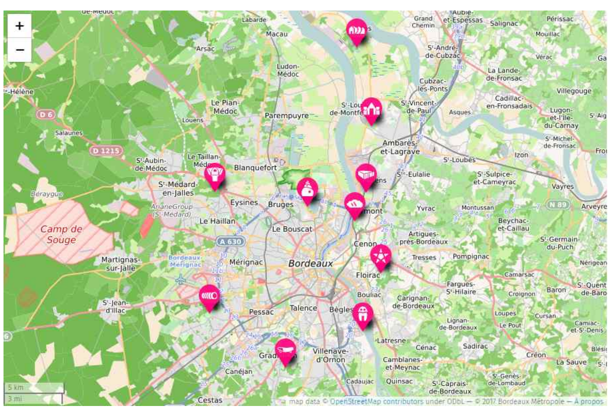
  \- 이방 데트라즈(Yvan Detraz) 건축가, 보르도 둘레 오두막 설계자

내용

○ 보르도 주변을 둘러싼 자연생태공원마다 친환경 오두막을 하나씩 설치

- 2010년 '구름' 오두막을 시작으로 '프리즘', '해먹', '푹 파인 통나무', '올빼미' 등 총 10개의 개성있는 오두막을 보르도시 주위를 둘러가며 설치

  \- 10개의 오두막 모두 건축가 '이방 데트라즈' 팀의 설계로 제작



[그림 1] 보르도시를 둘러싸듯 설치된 친환경 오두막 위치

○ 친환경 오두막은 가장 원초적인 필요만을 해결할 시설만 갖추고 있음

- 간이침대 혹은 벽면에 설치된 접이식 침대와 간단한 매트리스, 간이 테이블(오두막에 따라 없을 수도 있음), 친환경 건식 화장실(없을 때는 가까운 공공화장실 이용),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그림 2] 다양한 친환경 오두막의 모습과 내부 예시

○ 인터넷 홈페이지로 예약, 많은 시민에게 인기

- 매달 첫날 오후 1시 반에 다음 달 사용 신청을 받음
  - 매달 예약 개시 한 시간 만에 예약이 완료될 정도로 시민들에게 큰 인기
  - 예약 후 7일 안에 기본보험증명서와 보증금 100유로(13만 원)를 제출하면 확정
- 당일 14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이용
  - 사용 후 다음 사람을 위한 청소를 마치면, 관리사무소에서 시설물 상태를 확인한 후 보증금을 돌려줌

시사점

○ 환경·생태교육 기능 등 다양한 유익함 제공

-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에게는 친환경 생태교육 기능 제공
- 현재 살고 있는 도시 가까이에도 아름다운 자연이 있음을 일깨워 주며, 최소한의 조건 속에서 불편을 감수하며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

https://lesrefuges.bordeaux-metropole.fr/

https://lumieresdelaville.net/refuges-periurbains-moyen-original-de-decouvrir-territoire-bordelais/

http://www.bruitdufrigo.com/index.php?id=173

김 준 광 통신원, junkwang.kim@gmail.com

‘이웃의 날’ 기념축제 전국 1천여곳 동시 개최

독일 / 문화·관광

2019년 5월 24일 ‘이웃의 날’(Tag der Nachbarn)을 맞아 독일 전역 1천여 곳 이상의 지역에서 이웃축제가 개최될 예정임. 지역주민이 직접 축제를 기획한 다음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주관 단체에서 축제에 필요한 물품과 가이드 등을 지원하여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냄

배경과 개요

○ 매년 5월 말 ‘이웃의 날’을 맞아 하루 동안 독일 전역에서 천여 개의 크고 작은 이웃 축제를 개최

- 독일은 2018년부터 시작했지만, 프랑스와 영국 등은 예전부터 시행 중
  - 프랑스에서는 해마다 약 900만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행사 참여자의 74%가 더 강한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 확인
- 2019년 이웃의 날은 5월 24일로, 나이·출신·종교에 상관없이 함께하는 축제를 지향
  - 이웃이 서로를 알아가고,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유지하게 하며, 앞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 축제의 목표

○ 사회적기업 ‘굿후드’의 산하 재단이 주최하고, 다양한 지자체·기업 등이 협력

- 베를린 사회적기업인 ‘굿후드’(Good Hood GmbH)의 자회사인 ‘네베난.데에’(nebenan.de) 재단에서 주최
  - 이외에도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독일 텔레비전 복권회사, 슈퍼마켓 기업 에데카(Edeka), 독일 도시협회 등이 후원
  - 독일 적십자, 지방자치단체 연합, 신문사 짜이트(Zeit) 등과 파트너십 체결

○ 2019년 4월 9일 기준 1,250개 이상의 축제가 등록

- 등록된 축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하고 싶은 개인은 우편번호나 주소 검색으로 동네 축제를 찾을 수 있음
- 현재 독일 전역의 길거리 광고판에서 행사 내용을 홍보 중

주요 내용

○ 이웃 초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같이하기(Mitmach) 상자'를 제작·배포

- 축제에 사람을 초대하는 일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제작
  - 이웃 초대용 엽서, 포스터·전단지, 축제용 물품(축제용 보드게임, 색칠공부 세트, 장식물 등), 축제에 사용할 음식·음료수를 살 수 있는 슈퍼마켓 쿠폰 등이 포함
  - 직접 초인종을 눌러 이웃을 대면하지 않아도 초대용 엽서를 이웃의 우편함에 넣거나 포스터를 붙이는 방식으로 축제에 초대 가능
- 홈페이지에 자기 지역의 이웃축제를 등록하면 주최 측이 '같이하기 상자'를 무료로 배포
  - 초대장, 게임판, 소책자(축제 팁 수록) 등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영어·프랑스어·터키어·아랍어·폴란드어 등 다양한 언어를 지원

[그림 1] 이웃축제 '같이하기 상자'(왼쪽)와 보드게임판(오른쪽)

○ 보드게임을 진행하며 이웃과 소통하는 '이웃축제 게임'

-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보드게임으로, 참여자들이 게임 속 질문에 답을 하며 어색함을 깨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제작
- 게임판은 이웃축제가 열리는 동네를 상징하며, 참가자는 이웃과 함께 동네를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하며 게임을 진행
- 게임 방법은 주사위를 굴려 말을 이동시키고, 말이 도착한 칸에 있는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

-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먼저 주사위를 굴리고, 이후는 시계방향으로 진행
- 한 참여자가 질문에 답을 하면 다른 참여자들이 그 답을 받아 적음
- 2개의 말이 한 칸에 동시에 놓이게 되면, 해당하는 2명은 1번을 쉬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어야 함
- 게임 참여자의 답변과 의견을 적은 필기를 모아 사진을 찍고, 소셜미디어에 #tagdernachbahn이라는 해시태그를 붙여 사진을 공유

• 게임의 질문은 동네와 이웃을 알아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 우리 동네에서 가장 좋아하는 피크닉 장소는? 집을 비웠을 때 소포를 받아주는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빵을 살 수 있는 곳은? 우리 지역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지금 게임에 참여하는 이웃들의 이름은? 등

○ **이웃축제 사례: '음악과 함께 마치는 금식' 축제**

• 작년 이웃의 날이 이슬람교의 라마단 기간에 개최된 것을 계기로, 베를린 템펠호프 지역의 터키인 협회가 기획한 축제
- 라마단 기간의 금식을 마치고 먹는 첫 번째 만찬인 이프타르(Iftar) 만찬을 여러 이웃과 나누고 라이브 음악과 함께 여러 문화 간의 조화를 추구

• 이슬람의 문화인 라마단 정보를 이웃에게 알리고, 독일의 전형적인 문화가 아닌 동네의 이색적 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마련

[그림 2] '음악과 함께 마치는 금식' 이웃축제의 모습

https://www.tagdernachbarn.de/

https://www.tagdernachbarn.de/de/downloads

https://www.berlin.de/ba-treptow-koepenick/aktuelles/pressemitteilungen/2019/pressemitteilung.792689.php

https://www.berliner-woche.de/bezirk-neukoelln/c-politik/24-mai-2019-hufeisensiedlung-festakt-auftaktabend-zum-tag-der-nachbarschaft_a208822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tagdernachbarn/

홍 남 명 통신원, dangmu7722@gmail.com

미세먼지 줄이는 전기버스 도입 본격화

인도 델리 NCR / 환경·안전

인도 정부가 최근 친환경자동차 육성정책(FAME-India: Faster Adoption and Manufac-turing of Electric Vehicles in India)의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며 전기자동차 보급을 본격화함에 따라, 델리 NCR(광역수도권)도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인도 전기자동차 산업 성장의 발판 마련을 기대하며 올 하반기부터 총 1,000대의 전기버스를 도입할 예정

정책 배경: 인도 중앙정부의 2단계 친환경자동차 육성정책 발표

○ 1단계 친환경자동차 육성정책에 80억 루피(1천 3백억 원) 투자
- 친환경자동차 대상 구매보조금 지급과 관련 인프라 구축에 주력

○ 최근 2단계 친환경자동차 육성정책 발표
- 2019년 4월부터 4년간 시행될 정책에 1,000억 루피(1조 6천억 원)의 예산 확정
  - 당초 예상대비 2배 규모로 인도 정부의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 의지가 더욱 확고해졌다고 풀이됨
  - 2030년까지 신규판매 차량을 전부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는 것이 목표
- 구매보조금 지급 대상을 버스·택시 등 사륜자동차까지 확대하고 관련 기반시설 확충에 총력
  - 전기자동차에 집중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대기오염 감소,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 축소 등을 기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해석 가능

○ 델리 NCR 단위의 전기자동차 육성정책 추진
- 지역 내 전기자동차 공급 확대를 위한 활성화 정책 수립과 정책여건 마련에 집중
- 신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시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진행될 예정
- 2018년 12월 전기버스를 도입하여 3개월 동안 시범 운행
  - 자국생산 전기버스 'eBuzz K9'을 시범 운행하여 효율성 평가와 도로환경 적합성 측정

주요 내용

○ **델리 NCR에 올 하반기부터 1,000대의 전기버스를 도입 예정**

- 도입 예정인 총 3,000대 버스 중 1,000대를 전기저상버스로 구매 예정
  - 이번 도입사업으로 델리지역 약 30,000대의 버스 중 전기저상버스가 3.3%의 비중을 차지할 예정

○ **인도의 첫 번째 대규모 전기버스 도입 사업이며, 총 181억 루피(3천억 원)를 투입**

-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전기버스 운행 편수를 늘릴 예정
  - 버스 운영업자를 대상으로 전기버스 1대당 구매가격의 60%에 해당하는 750만 루피(1억 2천만 원)를 지원
- 전기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에 기존의 환경보전 부담금도 투입하여 총 80억 루피(1천 3백억 원) 사용 예정
  - 버스 운송업자의 책임 아래 6개 차고를 건설하여 주차·충전 설비를 제공
  - 버스 노선에 따라 중간 충전지점 등 전력공급 인프라 구축 예정

○ **전기버스 도입의 다양한 기대효과**

- 환경친화적 대체에너지를 사용하여 델리지역 미세먼지 저감 기대
  - 델리 NCR 초미세먼지의 약 30%가 자동차 배기가스
- 인도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 육성과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
- 델리 전기버스 도입사업의 성공 여부가 다른 지역의 전기버스 도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버스 운행 편수 확대로 델리지역의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 해소에 기여

[그림 1] 델리지역 시운전용 전기버스 도입 기념식(2018년 12월)

https://auto.ndtv.com/news/delhi-government-starts-trials-of-olectra-byd-ebuzz-k9-electric-bus-to-combat-pollution-1968889

https://www.hindustantimes.com/columns/opinion-why-gurugram-needs-to-keep-an-eye-on-the-national-capital-s-electric-bus-experiment/story-NpHWqZ42Sf7I6G1RNt0kUL.html

https://www.hindustantimes.com/delhi-news/in-first-phase-of-procurement-delhi-government-issues-global-tenders-for-deploying-375-electric-buses/story-EfaAuaUaqjN7zBzusDuw0I.html

http://www.overdrive.in/news-cars-auto/fame-2-rs-10000-crore-budget-approved-to-boost-ev-market-in-india/

http://www.segye.com/newsView/20180904005289

https://www.thehindu.com/news/cities/Delhi/delhi-to-have-highest-number-of-electric-buses-in-country/article26423015.ece

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

태양열발전 식수자판기로 물부족 문제 해결

인도 델리 NCR / 환경·안전

인도 델리지역의 고질적인 물 부족 문제 해결과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 사회적기업 '삐라말 사르바잘'(Piramal Sarvajal)이 태양열발전과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한 식수자판기를 개발함. 이 식수자판기는 원격으로 수질·수량을 관리하고 현금이 필요 없는 충전식 스마트카드를 사용하며,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해 매일 60만 명에게 안전한 식수를 보급하고 있음

배경

○ **오랫동안 심각한 물·식수 부족 상태에 시달린 인도의 수도 뉴델리**

- 기후 온난화에 따른 강수량 부족, 인구 증가, 빈민가의 빠른 성장 등의 요인으로 물과 식수 부족 현상이 심화
- 델리지역에서 수돗물로 음료수를 공급받는 지역의 비율은 82%이며, 슬럼가 가정은 절반만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음
  - 수돗물 공급시간도 아침 2시간(오전 5~7시)과 저녁 2시간(오후 5~7시)으로 한정돼 있고, 수압이 낮아 전기 모터를 가동하지 않으면 물을 받을 수 없음

○ **안전한 식수의 공급 부족은 시민 건강과 생활상의 문제 초래**

- 워시와치(WASHwatch) 보고서(2017)에 따르면 인도에서 1억 5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안전한 식수를 이용할 수 없음
  - 안전하지 않은 식수가 일으키는 수인성질병은 5세 미만 어린이의 주요 사망원인
- 물 부족에 시달리는 인도 가정은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물값으로 사용
  - 인도 전체에서 상수도를 갖춘 가정은 전체의 25%이고 나머지 75%는 수질 검증이 안 된 지하수를 마시는 물로 사용
  - 지하수를 불법으로 시추해서 판매하는 물탱크 마피아에게 식수를 구입하기도 함
- 인도 도시인구의 20% 이상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없는 BTP(Beyond the Pipe) 그룹으로, 주로 빈민가에 거주

○ **물 부족의 주요 원인은 인프라 미비**

- 뉴델리는 자체 수자원이 없어 인접한 주에서 물 공급을 의존해야 하고, 수도관이 연결된 지역이 부족해 물탱크에 의존하는 지역이 많음

- 수도 인프라도 열악해 수도관 누수로 52%의 물이 낭비

• 낙후된 지역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구조화된 협업 솔루션 필요

[그림 1] 식수 공급 탱크에서 물을 받는 뉴델리 시민들

주요 내용

○ **사회적기업 '삐라말 사르바잘'에서 안전한 식수공급 기술을 개발**

• 삐라말 사르바잘은 빈민 지역의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 2008년에 설립된 사회적 기업

○ **충전식 스마트카드로 저가의 식수를 살 수 있는 태양열발전 방식의 식수 자동판매기 제작·보급**

• 현금거래가 필요 없는 충전식 RFID 스마트카드나 전용코인을 이용해 1~20ℓ의 식수를 구입할 수 있으며,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

• 식수자판기는 태양열발전으로 가동되며 클라우드 시스템과 연결되어 원격으로 스마트카드를 확인하고 남은 식수의 양을 모니터링

• 자판기의 물이 부족하면 경보가 발령되고, 지역의 식수보급소에서 차량으로 물을 운반해 재충전

○ **수질정화 플랜트, 전용 컨트롤러 등을 활용해 운영**

• 미크론(1/1000mm) 여과, 역삼투여과 등 5단계 여과 공정으로 식수를 정수하는 플랜트 운영

- 광범위하게 분산되어있는 식수 정수공장과 보급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제어하는 컨트롤러 개발
- 원격 모니터링으로 물의 양과 전용함유농도(TDS: Total Dissolved Solids) 등 다양한 관련 지표를 실시간으로 파악

[그림 2] 식수 자동판매기

○ **정부 지원이 부족한 도시 빈민 위주로 제공**

- 20개 주 1,400개의 지역에서 매일 60만 명에게 저가의 식수 공급 중
- 델리 수자원국의 지원을 받아 델리 내 7개 빈민지역에 식수 자동판매기를 설치
- 오디샤주의 부바네셔와르시는 식수 자동판매기 프로젝트를 시작한 최초의 스마트시티로 4개의 중앙 식수 처리장과 40개의 식수자판기를 설치

https://www.safewaternetwork.org/sites/default/files/Safe%20Water%20Network_Delhi%20City%20Report.PDF

https://www.bbc.com/news/world-asia-india-33671836

https://www.indiatoday.in/india/north/story/tanker-mafia-djb-officials-delhi-water-crisis-sheila-dikshit-105615-2012-06-14

http://www.rainwaterharvesting.org/index_files/about_delhi.htm

https://www.mapsofindia.com/my-india/society/water-problem-in-delhi-causes-and-solutions

https://www.indiawaterportal.org/articles/technology-helps-provide-access-safe-drinking-water

http://www.sarvajal.com/who-we-are.php

박 효 택 통신원, korindo100@gmail.com

스마트교통기술 활용 무인 도로청소차 도입

싱가포르 싱가포르市 / 도시교통

싱가포르는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네이션'(Smart Nation) 계획을 추진 중임. 이에 따라, 최근 스마트네이션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교통 분야에서 '무인 도로청소차'(Driverless Road-Cleaning Vehicle)를 개발하여 시범운행할 예정이며, 도시 환경관리의 효율 개선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 중

배경: 스마트네이션 계획

○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삶의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

- 싱가포르는 2005년 세계 최초로 '지능형 국가'(Intelligent Nation)로 도약하겠다는 10년 계획(iN2015)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2014년 11월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가 스마트네이션 계획을 발표

○ **스마트네이션 계획의 우선 목표는 아래 4가지 당면과제 해결**

- 증가하는 노령 인구 해결, 정체된 생산성 성장 개선, 장래 고인력 일자리 창출, 도시국가로서 국가 정체성 확립

○ **금융·교통·의료·도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네이션 계획 추진**

- 이 중 스마트교통 분야는 스마트네이션 계획의 핵심 분야
  - 최근 스마트교통의 하나로 무인 도로청소차 시범사업을 추진 중

주요 내용

○ **싱가포르 무인자동차 위원회 로드맵에 따라 2017년부터 무인 도로청소차 사업을 추진**

- 싱가포르 국립환경청과 교통부 주도로 대학·민간기업·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
  - 난양공대(Nanyan Technological University), 볼보(Volvo), 엔웨이(Enway: 독일 무인자동차 스타트업), 베올리아(Veolia: 환경 서비스), 웡펑엔지니어링(Wong Fong Engineering Works: 싱가포르 현지 엔지니어링) 등이 참여

- 컨소시엄이 개발한 차량은 국립환경청과 교통부의 엄격한 사전 안전평가를 거친 후 무인자동차 테스트 지역의 공공도로에서만 시험 주행
  - 시험 차량 주행 시 긴급 상황에 대비해 반드시 운전자가 승차
- 2019년 3월 21일 1년의 개발 과정과 6개월의 증명 과정을 포함한 총 18개월의 시범사업(2020년 예정) 추진계획을 발표

[그림 1] 시범사업 예정인 싱가포르 무인 도로청소차

기대 효과

○ **도로 환경관리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 효과 기대**

- 도로 환경관리의 비약적인 생산성 향상과 함께 고인력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
- 무인화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싱가포르 교통 시스템의 접근성(Accessibility)과 연결성(Connectivity)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
- 싱가포르가 현재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 중인 로봇 산업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transport/driverless-road-cleaning-vehicles-may-make-debut-here

https://www.smartnation.sg/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technology/what-next-for-smart-nation-singapore-getting-citizens-and-smes-11046496

https://www.mot.gov.sg/news-centre/news/Detail/Committee-on-Autonomous-Road-Transport-for-Singapore

https://www.businesstimes.com.sg/transport/two-singapore-consortia-to-develop-trial-driverless-road-cleaning-vehicles

이 은 주 통신원, jelia1130@gmail.com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 '규제 강화 - 에티켓 홍보'

미국 오스틴市 / 도시교통

미국 오스틴市는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불법주차나 과속 등에 따른 시민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함. 6개월마다 공유서비스 업체의 허가를 갱신하며, 시민에게는 바른 이용 에티켓을 홍보하고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주요 내용

배경: 미국 내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 증가

○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가 미국 내 대도시에서 빠르게 확장 중**

- 공유 전동스쿠터는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어디에서나 탈 수 있고, 기존 교통수단이 닿지 않는 곳까지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
- 2017년 이후 버드(Bird), 라임(Lime) 등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 전문업체가 성장하고, 우버(Uber)와 같은 기존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도 전동스쿠터 공유를 시작
- 현재 100여 개 도시가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대도시 위주로 확장

○ **공유 전동스쿠터의 불법주차와 안전 문제로 많은 도시에서 규제를 논의·도입**

- 일반적으로 공유 전동스쿠터는 정해진 거치대가 없어 사용자가 정해진 장소가 아닌 아무 곳에나 불법으로 주차하여 주민과 갈등을 유발
- 차도나 인도에서 주행할 때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안전 문제 초래
-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는 규정 마련 전까지 전동스쿠터의 운행을 일시 중지

○ **오스틴시는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의 주요 지역 중 하나**

- 2018년 4월 관련 서비스 승인 이래 9개 회사가 빠르게 진출해 1만 5천여 대의 공유 전동스쿠터를 운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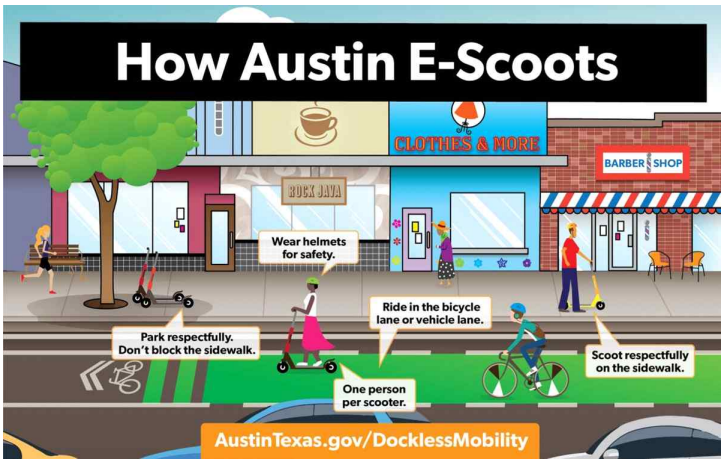
주요 내용: 업체는 엄격히 관리, 시민에게는 에티켓 홍보와 정보 공유

○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 업체의 엄격한 관리**

- 시정부는 2018년 4월부터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를 허가
  - 모든 공유서비스 업체는 6개월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함
  - 오스틴시는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전동스쿠터와 공유서비스 업체를 엄격히 심사하고, 해당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허가를 발급

○ 시민에게는 공유 전동스쿠터의 바른 사용 에티켓을 홍보

- 보행자 우선, 책임 있는 주차, 출입금지 지역 준수, 개인정보 보호, 교통법규 준수 등의 내용을 담은 팸플릿을 제작 및 홍보



[그림 1] 공유 전동스쿠터의 바른 이용을 안내하는 팸플릿

○ 전동스쿠터 운행 데이터를 오픈데이터로 시민에게 공유

- 운행 데이터베이스(Dockless Vehicle Trips Dataset)에 시 전체 공유 전동스쿠터의 운행 데이터를 매일 공개하고, 웹사이트에서 매달 통계정보 제공
- 웹을 이용한 인터렉티브 툴(Dockless Data Explorer)을 개발하여 시간별·지역별 운행 데이터를 제공하고, 개발자를 위한 API도 공개

○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 관련 시민의식 조사

- 2018년 약 9천 5백 명의 시민에게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의 경험·인식·의견을 조사한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

○ 시의회는 시민 안전을 위해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 사용자 대상 규제 강화를 고려

- 2019년 3월 시의회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공유 전동스쿠터 이용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규제를 논의 중

https://austintexas.gov/docklessmobility
https://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Transportation/eScooter_Etiquette_Digital.pdf
https://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Transportation/Dockless_Mobility_Community_Survey_Report_2-28-19.pdf
https://dockless.austintexas.io
http://www.austintexas.gov/edims/document.cfm?id=316955

이 경 선 통신원, kyungsunlee14@gmail.com

“세입자 주거안정성 높이고 집주인 권리도 보장”

영국 런던市 / 도시계획·주택

영국 런던市는 기존 주택 임대차법의 문제로 인식되었던 임차인의 주거안정성 불안과 집주인의 권리 행사 어려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임대기간의 자유로운 설정, 비과실 퇴거조항(No-Fault Eviction) 수정, 임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민간 임대주택 모델을 제시

배경

○ **민간 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성이 약화돼, 새로운 주택임대차 모델 필요성 제기**

- 런던의 민간 임대주택 거주자는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와 낮은 수준의 주거환경에 고통받고 있으며, 자가주택 거주자보다 이사 비율이 6배나 높은 상황(2018년 기준)
  - 이와 같은 불안정한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특히 힘든 계층은 고령자와 사회취약계층, 그리고 런던 임대 가구의 36%를 차지하는 양육가정임

○ **1988년 주택법 개정 이후 임차인 보호가 약화**

- 그 이전에는 ‘규제 임대차’(Regulated Tenancy)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연장계약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었음
  - 또한, 집주인의 퇴거 요구도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했음
- 1988년 이후 ‘보증 단기임대차’(AST: Assured Shorthold Tenancy)가 적용
  - 임차인은 초기 계약 시 정한 기간에 따라 거주하며, 합당한 퇴거 사유가 없어도 임대 종료 시 집주인이 2개월 전에 사전 통지만 하면 퇴거해야 함
- 임대기간이 고정된 보증 단기임대차의 도입 이후 고령자·청년·신혼부부·양육가정 등의 주거안정성이 크게 약화
  -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대료가 폭등하였으며, 2018년 기준 영국 민간 임대주택의 80%가 임대기간 6개월~1년의 보증 단기임대차 계약
  - 또한, 임대차 계약 시 ‘파기 조항’(Break Clause)을 설정하면 계약기간 내에도 일정 기간 이후 집주인이 일방적 퇴거를 요구할 수 있어 세입자의 주거안정성을 위협

○ **중앙정부가 임대기간을 늘리는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런던시는 동의하지 않음**

- 영국 중앙정부도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일반적인 1~2년 임대기간을 3년으로 고정하는 대안을 제시

- 하지만 중앙정부가 제시한 3년 고정임대 방식도 임대기간이 늘어났을 뿐, 세입자 보호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
- 3년이 지난 이후의 임차인 보호 기능이 약하고, '파기 조항'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세입자의 주거안정성은 여전히 취약함

• 런던시장 사디크 칸(Sadiq Khan)은 중앙정부 안보다 더 나아가 임대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새로운 주택임대차 모델인 '런던 모델'을 제안

주요 내용

○ **런던시는 중앙정부의 개선안보다 더 진보된 모델을 제안**

• 시는 임차인이 원하는 만큼 임대계약을 유지하는 자유임대차(Open-Ended) 방식을 바탕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를 만족시킬 방안을 개발
- 임차인은 원하는 기간 임대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종료 시에는 집주인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
- 합당한 이유가 뒷받침된다면, 집주인이 집의 소유권을 다시 가져오기 쉽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게 고려

• 주요 내용은 자유임대차 방식 도입, 비과실 퇴거 조항 개정, 집주인 권리 보호의 3가지

○ **기존의 보증 단기임대차에서 자유임대차로 전환**

• 기존 임대차 제도의 문제점인 세입자 권리 주장 어려움, 재계약 우려, 주거안정성 취약 등을 극복할 방안
- 또한, 기존 임대차 제도가 도시 가구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거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도 보완

• 임차인은 자신이 원하고 필요한 만큼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되 집주인의 입장도 배려
- 임차인은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종료 시 사전에 집주인과 충분히 협의해야 함

○ **비과실 퇴거 조항의 개정**

• 1988년 주택법 개정 이후 특별한 퇴거 사유가 없어도 집주인이 2달 전에 통보만 하면 세입자는 퇴거해야 함

• 칸 시장은 진정한 의미의 주거안정을 이루려면 위 조항의 삭제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

○ **집주인의 권리 보호**

- 비과실 퇴거 조항의 개정은 세입자뿐 아니라 집주인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 임대계약 기간 중 세입자의 과실로 퇴거 조치가 내려져도 실제 퇴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 집주인이 비과실 퇴거 조항을 활용해 2개월 전에 퇴거를 통지하는 편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과실 퇴거 조항의 개정 시 집주인의 권리도 함께 보호할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

○ **시정부는 위와 같은 새로운 주택 임대차 모델 실현을 위해 노력 중**

- 민간 주택임대 시장의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주택법 개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to-tackle-affordability-crisis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assembly/tom-copley/rent-control-proposals-must-be-backed-by-ministers

---

정 기 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도시 재창조·재생 꿈꾸는 시민참여 마스터플랜

브라질 상파울루市 / 도시계획·주택

브라질 상파울루市가 2014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 중인 전략적 도시개발 마스터플랜(PDE: Plano Diretor Estrategico)은 더 살기 좋은 도시 건설에 필요한 변화를 시민의 참여로 만들어 내기 위해 처음부터 많은 시민과 함께 수립한 개발계획으로, 지역 간 불평등 해소와 도시의 생산성 향상, 난개발로 훼손된 경관의 재정비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개요

○ **지역 균형발전과 도시의 새로운 가치 형성을 목표로 하는 개발계획**

- 부동산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불평등 개선, 난개발로 훼손된 도시경관의 재정비 등을 바탕으로 균형 있는 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함
- 도시 내 공간·지역의 사회적 목적과 기능을 재조정하여 새로운 가치 형성

○ **마스터플랜은 도시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여러 지침을 제공**

- 2014년 6월에 승인되었으며, 상파울루시 도시정책협의회(CMPU)와 시민들이 처음부터 함께 낀 단추
  - 25,000여 명이 참여한 114건의 공청회 개최와 5,000건의 온·오프라인 공개 제안, 1만여 건의 기부금 조성 과정 등을 거치며 마스터플랜 전략을 견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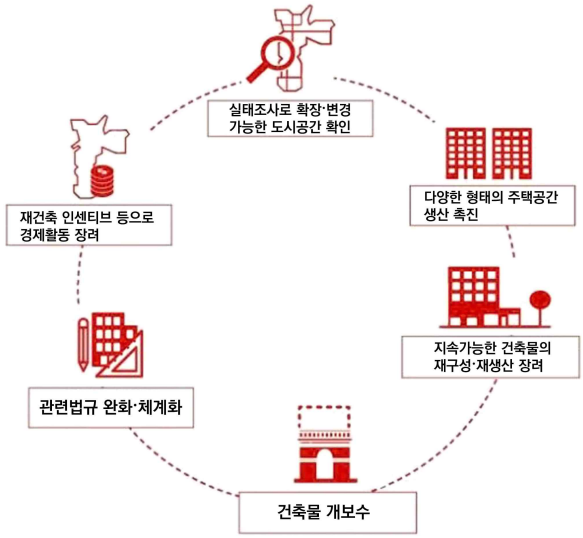
주요 내용

○ **사회적 기능을 하지 않는 빈 땅을 이용해 도시생산성을 향상하는 전략적 도시개발**

- 실태조사로 확장·변경이 가능한 도시공간을 확인한 후, 적합한 방식으로 개발
  - 실태조사 → 주택과 건축물의 신축·재생산·개보수 → 관련법규 완화·체계화 → 재건축 인센티브를 이용한 경제활동 장려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를 따라 진행

○ **사회적 권리의 측면에서 주택정책을 수립·시행**

-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주택 마련, 지방주택 공급 계획 등
-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에 공동주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기금의 30%를 주택구매 보조금 등에 사용



[그림 1] 전략적 도시계획의 순환 과정

○ **도시의 이동성 향상**

- 대중교통망 확장과 대체 수단(자전거 네트워크, 보행자 도로 등)을 개발해 심각한 차량정체로 낭비되는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
- 도시 간 이동 시스템(물류, 수로, 자동차 공유서비스 등) 재정비로 생산성 제고

○ **도시 내 지역별 삶의 질 향상과 균형화**

- 공공도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별 커뮤니티와 네트워크 형성
-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 공급을 바탕으로 균형발전 추구
- 교육·건강·스포츠·사회·문화를 기준으로 지역과 도시의 사회가치 마련
  - 브라질 전 지역에 404개의 지역센터를 운영 중인 쎄스키(SESC)와 파트너십을 맺어 이 모든 기능을 포함하는 공공성격의 사회적 공간을 지원하고 확대
  - 쎄스키는 사기업의 사회환원기금으로 문화예술·교육·건강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민간기관
- 공원 등의 녹지와 공공장소를 마련해 건강한 도시의 삶 제공
  - 도시 내에 167개의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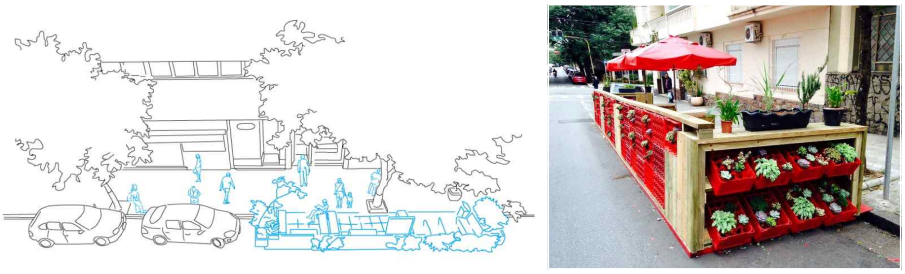
○ **문화유산 보존과 문화사업 강화**

- 문화유산의 가치와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는 사회적 교육 실행
- 도시·국가 정체성에 핵심적인 유·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
- 문화 편의시설 보전을 위한 사회적 인식제고

○ **도시 경제성장의 대외 홍보와 도시이미지 브랜딩**

○ **환경 친화적 도시로 발전**

- 노상주차장을 활용하여 작은 도심공원을 형성하는 파크렛(Parklet) 등
  - 파크렛은 면적을 기준으로 특별세금을 납부



[그림 2] 노상주차장을 활용한 도심공원 파크렛

○ **난개발로 훼손된 도시경관을 살리는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젝트 추진**

- 도시경관보호위원회(CPPU)는 도시풍경의 조화로움을 위해 무분별한 광고나 공공예술(특히 벽화), 이벤트 등을 사전 승인시스템으로 규제하기로 함
  - 심의위원회는 8명의 행정가와 8명의 시민대표로 이뤄짐
- 공공건물에 노출되는 공공예술은 CPPU의 사전승인이 필요

○ **이벤트의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벽화 등의 공공예술 관련 규제 지침 마련**

- 공공장소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의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결과물에는 시정부·주최자·스폰서의 로고삽입 필수
- 문화적 특성이 없는 이벤트(예: 브랜드·제품 홍보 활동)는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에 이름과 로고를 표시할 수 없음
- 공공예술(낙서, 벽화 등)은 CPPU의 사전승인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공간 소유주의 사전동의(공공재산은 관련 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외설적·차별적 메시지, 상업적 서비스·제품의 간접적 메시지 등이 포함되거나 표시되면 안 됨

http://www.prefeitura.sp.gov.br/cidade/secretarias/urbanismo/
http://www.prefeitura.sp.gov.br/cidade/secretarias/urbanismo/participacao_social/conselhos_e_orgaos_colegiados/cppu/consultas_a_cppu/index.php
http://iabsp.org.br/concursoaguabranca/index.php/apresentacao/

김 현 아 통신원, art.transipot@gmail.com

시민이 계획하는 유럽 최대규모 초소형주거단지

독일 하노버市 / 도시계획·주택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삶의 실현을 고민 중인 독일 하노버市는 유럽 최대 규모의 초소형주거(Tiny House) 단지인 에코빌리지(Urban Ecovillage) 계획안을 발표함.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에코빌리지는 시민공동체가 직접 주도하는 공공활동을 바탕으로 계획·개발하는 친환경 주거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

배경

○ **독일 니더작센주의 주도인 하노버시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중**

- 지난 10년간 약 3만 명의 인구가 증가(전체인구 53.5만 명, 2017년 기준)
- 인구성장률은 연평균 0.83% 수준(2011~2017년 기준)

○ **도시 내 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삶에 관한 고민**

- 주거지 부족, 기후변화 등 도시가 직면한 사회문제를 대상으로 하노버 지역 내 여러 시민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공공토론과 제안 등의 활동을 진행 중

○ **기존방식과는 다른 신개념 주거형태와 주거지를 모색**

- 하노버 전체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절반 이상(50.8%, 2016년 기준)
- 학생·근로자 등 중저소득 계층을 위한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개발의 필요성
- 도시 내 친환경적 삶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주거지 마련

주요 내용

○ **초소형주택 단지 에코빌리지 개발계획**

- 시민공동체 하노버전환마을(Transition Town Hannover eV)은 초소형주택 단지인 에코빌리지를 시정부와 시민에게 제안
  - 지난 1월 개최된 에코빌리지 공청회에 3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석해, 해당 개발계획에 많은 관심이 있음을 확인
- 하노버시 부르크(Burg) 지구의 110,000㎡ 영역을 대상으로 거주민 1,000명 규모의 주거단지를 계획

[그림 1] 하노버시 부르크지구 에코빌리지 대상지

- 초소형주거는 주로 목재로 구축되고, 미니멀라이프에 맞는 소규모의 내부공간을 갖추었으며, 필요에 따라 차량 이동이 가능한 신개념 주거형태
- 하노버 에코빌리지는 도심과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서 자연녹지와 함께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삶을 강조

[그림 2] 초소형주거(Tiny House) 예시

○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개발계획을 진행 중이며, 2025년 완성이 목표

- 현재 하노버전환마을은 총 12개의 분과를 기획하여 시민 중심의 워크숍 활동 중
  - 12개 분과는 개발비전, 사회호환성, 도시계획, 마을생활, 초소형주택, 모듈러 빌딩, 경제, 자립성, 마을학교, 건축, 연구, 이동성으로 구분
  - 각 분과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향후 개발계획에 반영 예정

○ 하노버시는 새로운 주거단지 개발에 긍정적

- 하노버시는 에코빌리지 계획이 독일연방법과 니더작센주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어떤 형태의 주택방식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
- 다만, 하노버 지역 내 기존 주택개발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주택시장이 과잉공급 상태가 되지 않도록 조절할 예정

○ **기존 토지이용자들은 에코빌리지 개발을 우려**

- 개발 대상지역은 현재 하노버시에서 공급한 시민농장(Kleingärten) 지역에 포함
- 시민농장의 토지이용자들은 정원 등 녹지중심의 시민농장이 주거지로 개발되어 자연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
- 하노버전환마을은 기존 시민농장과 공존할 수 있는 에코빌리지를 계획하겠다고 설명

https://www.ecovillage-hannover.de/

https://transitionhannover.jimdo.com/

http://www.haz.de/Hannover/Aus-der-Stadt/Ecovillage-Hannover-Grosses-Interesse-an-Oekosiedlung-mit-Tiny-House-Siedlung

http://www.haz.de/Hannover/Aus-der-Stadt/Hannover-Ecovillage-mit-Tiny-Houses-in-Oekosiedlung-bzw-Oekodorf-in-Burg-von-Transition-Town-geplant?fbclid=IwAR0TOrfdRMr9OOHuZgohK7dVbDkYCsBXS8uezO6iFXMY76ZF7NXy1NtSW0s

http://www.neuepresse.de/Hannover/Meine-Stadt/Projekt-Ecovillage-Bekommt-Hannover-ein-Oeko-Dorf

https://www.citypopulation.de/php/germany-niedersachsen.php?cityid=03241001

https://www.nim.org/en/compact/focustopics/german-cities-popular-single-people

이 희 재 통신원, h.lee@baek-architekten.com

세계도시동향 제455호

발행인 서왕진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19년 5월 7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출판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담당: 정연우(02-2149-1017, cyw797@si.re.kr)

ISSN 2586-5102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